

# IECEE 인증관리위원회 총회



오 광 해  
전기용품안전팀 공업연구원  
02-509-7242  
khoh@mocie.go.kr

## 1. 출장 개요

회의명 : 제10차 국제전기기기 인증관리위원회 총회  
(The 10th IECEE<sup>1)</sup>/CMC<sup>2)</sup> Moscow Meeting 2007)

장소/일정 : 모스크바 / 07.6.24(월) ~ 6.30(토)  
(7일간)  
워크숍(6.25), 총회(6.26~27), IECEE 의장단NCB  
평가단협의(6.28)

### 출장 목적

- 08 IECEE/CMC 제주총회 개최 협의 및 초청연설
- NCB 신규 지정평가(전기연구원)에 대비한 평가위원
- 장면담
- 총회 및 Workshop 참가
- 회원국간의 견교 및 국제인적네트워크 구축

### 출장자 및 주요임무

전기용품안전팀 감수팀장, 오광해연구원, 강윤이  
전문위원

※ 4개 시험인증기관, 규제개혁위원회의 외부전문가명 함  
석(자체경비)

### 주요임무

강감수: 한국대표단 인솔, 제주총회 초청연설  
워크숍·총회·의장단협의 및 건별 대응  
총괄

오광해: 워크숍 및 총회 주요 안전 사전검토 및 보  
고, 의장단 및 외국대표단과의 양자회의

1) IECEE :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to Standards for Safety of Electrical Equipment  
2) CMC : 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섭외

강운이: 총회준비사항및 진행사항조사, 의장단·외국대표단협의내용정리

\*기타참석자: Workshop 및 총회 참석, 외국대표단과의 정보교류

2. 참가 결과

I IECEE 의장단과의 '08 IECEE/CMC 제 주총회 개최 협의

- 일시: 2007. 6. 28(목) 10:00~12:00
- 장소: Hotel COSMOS, 레스토랑 evening
- 업무: 총회일정, 준비사항, 컨퍼런스주제 협의
- 담당자: 강갑수팀장, 오광해연구원, 강운연문위원
- 면담자: Pierr De Rubo(간사, 프랑스), Tara Mitchel(비서), Gosta Fredriksson(의장, 스웨덴 SEMKO)

총회 일정 확정 : 6월 2째주 (당초 6월 4째주) 우리나라의 기후(장마등), 유관회의(CAB)일정등을 고려하여총회일정을 변경기로한다.

정책· 전략포럼, 임원회의, 의장자문그룹 회의세부행사일정협의

	6.9(월)	6.10(화)	6.11(수)	6.12(목)	6.13(금)
오	IECEE	정책 및			작업반(WG) 회의
전	임원회의	전략포럼	총회	총회	
오	의장자문				
후	그룹회의	컨퍼런스			

회의시설 요구사항 협의

- IECEE 임원회의(4명, 페이퍼보드+전원코드+음료

+점심)

- 의장자문그룹회의(4명, 프로젝트+페이퍼보드+전원코드+음료+점심)
- 정책및 전략포럼(18명, 프로젝트+페이퍼보드+전원코드+음료+점심)
- 컨퍼런스(150명, 프로젝트+페이퍼보드+전원코드+음료)
- 총회(150명, 프로젝트+페이퍼보드+전원코드+음료+점심+만찬)
- 작업반회의(8명, 프로젝트+페이퍼보드+전원코드+음료+식사)
- 사무국(컴퓨터(영문MS)+전화+팩스+복사기+초고속인터넷, 임원사무공간)
- 임원숙소(간사+의장, 인터넷) 및현용사무공간(간사+비서, 인터넷) 제공

준비상황 점검일정 등 협의 회의장소및 회의등록양식통보( 07.12.31, IECEE 사무국)

IECEE 의장단한국방문및 회의장점검( 08.2월중, IECEE 간사)

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협의

워크숍을 컨퍼런스 행사로 변경 개최(6.10(화) 14:00~18:00)

컨퍼런스주제는 SDoC 도입 확산시의 인증기관역할" 각국의 CB 시험성적서 인정 현황 및 국가적 차이점 고려 등 2개 과제를 제안하였으나 세부내용을 추가 검토하여 확정기로했다.

컨퍼런스주제 선정 및 발표자 섭외에 대해서는 의장단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 2 제10차 CMC 모스크바 총회 준비 및 진행 사항 조사

준비일정 : 회의초청(5개월전), 등록양식배포(4개월전), 사전등록(2개월전 마감)

※S.V. Pugachev(러시아Gost Re. 부장급)가전체총괄

총회장 : 국가별로 3석 배치(국가명패· 국기 비치, 프랑스어 알파벳순)

5m×5m 스크린2대, 단상50" LCD판넬, 연단노트북, 마이크시설(의장· 간사· 부의장· 재추천개, 대표자2명당1개, 핸드프리마이크개), 엔지니어상시배치

워크숍 : 주최국 재량으로 패널 주제발표 진행, 영-러 동시통역

사무국 : 주최측과 IECEE 임원이 1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약 7×7m)

8인용원형테이블, 전화기, 복사기1, 프린터1, 컴퓨터1, 사무용품비치

※사무국이회의장소와별고인터넷이되지않아IECEE 간사로부터개선요청받음

만찬 : 회의참가자, 동반자, 특별게스트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정식과안주류에보드카및 와인제공. IECEE 공로자에 대한감사패전달, 만찬사(Elkin, 러시아연방기술규체원원장), 전통무용공연및왈츠연주

동반자 프로그램 : 관광버스로 무료 시내투어(총회 2일째 오전 15명 참가)

## 3 워크숍 참가

- 일시: 2007. 6. 25(월) 09:00~18:00
- 장소: Hotel COSMOS,
- 참석자: 한국대표단전원
- 주요내용: 무역장벽완화를위한 수단으로서의 IECEE라는 주제로패널발표형식으로 진행

IECEE의 회원국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과 IECEE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MTL제도의 운영 현황 설명 (강사: Rubo, IECEE 간사)

IECEE CB Scheme 참여는세계적으로가장인지도가 높은인증기관및 시험소간의네트워킹를국가차원에서구축가능하다.

- 안전한전기제품, 기기및 부품을수입함으로써 부적합제품으로부터국내시장을보호한다.
- 전 세계적인적합성평가기구에참석하여정책 결정에참여한다.
- 적합성평가포럼및 워크샵에참여하여인증및 시험활동분야의최고 전문가들과정보교류및 협력
- 세계최고의전문가들이개발한관련 시험성적서 양식, 시험절차및 운영문서에의접근 및 활용

MTL제도의활용으로제조업체는보다빠르고경제적으로시장접근가능하다.

- 현재IECEE에 등록된MTL은 총 1,015개(TMP 455, WMT 314, SMT246)
- 새로운개념의MTL 프로그램소개

※RMT (Recognized Manufacturer Testing) : NCB가MTL의 체제와시험능력인정

※LTR (Local Technical Representative) : 현지대표



러시아 시장의 CB시험성적서 활용사례 설명 (강사 : Timco, 러시아)

러시아는국제규격(IEC)과의부합화를추진하여CB 시험성적서를인정한다.

- 저압전체분야35%, IECEE 규정의 저압기기 60% 부합화

러시아의인증대상품목정개요

- 저전압기기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 안전요구사항을지정
- 지정된품목의저전압기에대하여인증시행
- 저전압기기를사용하는사용자의최소자격수준명시

유럽 CE마킹을 위한" 자기적합성선언"과" 제 3자 인증"의 장단점과 문제점 (강사 : Kreinberg, 독일)  
제 3자 시험소 및 인증기관과의관여로불량제품에대한 시장유입방지가가능하다.

※ 제 3자 인증기관의관여없이 시장에유입된안전하지않은제품의수: 매년0억종(인증시험통계로추정)

불량제품은시장유입이사전에감지되고제거되어야 하며제 3자 시험인증기관에의한안전확인어필요하다.

※ 시장유입불량제품의대다수는CE마크를부착하고있으며지정된기관의강제적인관여가없는저전압(Active)에 해당.

기업 시장활동 장애 해소를 위한 통합된 적합성평가시스템의 필요성 (Kajiya, 일본 파나소닉)

CB 인증의효과를저하시키는강제인증제도(EMC, 위생, 환경등)에 대한각국의요구사항이존재함을주장했다.

※ 예) 중국의EMC, 환경규제, 미국의Fda 위생규제, 한국의EMC

CB 인증의활성화와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완)을 위한정책및전략포럼운영이필요하다.

#### 4 총회 참가

- 일시: 2007. 6. 26(화)~27(수)
- 장소: Hotel COSMOS
- 업무: 안전 대응 및 08 CMC 총회 유치연설
- 담당자: 한국대표단 전원
- 주요안건 CB 시험성적서의 인정 확대 및 MTL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

' 06.9 베를린회의 및 ' 07.5 시드니에서 열린 적합성이사회의 결과 공지 (외제 4)

- (1) 중국 CCC 인증의 IECEE 제조자 시험 CB 인증서 수용 거부
- (2) 에너지 효율 국제 적합성 평가 추진 검토를 위한 작업 그룹 구성
- (3) IECQ의 HSPM (유해물질 관리) 프로그램 범 운영

중국에서는 MTL을 인정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CAB (적합성이사회)에 상정 하여 중재 방안을 계속 검토 키 로 했다.

MTL (제조자 시험소) 시험 성적서 정문제는 국내 안전 인증 기관 및 업계의 견을 반영 하여 입장 정리 필요 하다.

- 우리나라는 WMT, SMT, RMT 중 WMT, SMT 인정

※ MTL (Manufacturer's Testing Lab) : IECEE 에 등록 된 제조자 가 자기 생산 제품 에 대해 규정 된 절차 에 따라 CB 시험 성적 서 를 스스로 발급 하는 제도.

제 3자 (NCB) 감독 에 따라 WMT (Witnessed), SMT (Supervised), RMT (Recognized) 구분

MTL 심사보고서의 IECEE Website 공개에 대한 논의 (의제9)

미국측은 MTL 심사보고서의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대부분 국가들이 찬성하여 MTL 심사보고서는 IECEE Website에 공개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MTL 심사보고서는 ISO/IEC 17025(시험소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며 기밀사항은 거의 없으므로 공개에 찬성했다.

회원국, 국가인증기관, 공인시험소 등록현황 등 공지 (의제10)

현재 47개 회원국, 61개 인증기관, 233개 시험소가 등록되었다.

※ 스티랑카시형소(Nation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자격정지(기관평가결과)

CAB 제출을 위한 '08년 IECEE 회원 분담금 및 예산(안) 검토 승인 (의제 11)

우리나라 분담금: 460만원(전체의 2.8%인 9번째)

※ 07년도 우리나라 분담금은 380만원(전체의 2.3%인 24번째)

CB Scheme(기본 규정(01) 및 절차규정(02)) 변경 (의제 12)

공장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 신규 제정: IECEE 01 개정

CBTL이 기존의 NCB에서 새로운 NCB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새로운 NCB에 위임: IECEE 02 개정

제주총회 초청연설 및 향후 회의일정 공지 (의제 27)

'08 IECEE/CMC 제주총회 초청연설 및 홍보동영상 상영(장갑수팀장)

• 각국대표단 및 의장단에서 차기 제주회의에 대하여 큰 관심과 감사 표현

2009~2010년 회의 장소 공지

- 2009년 CMC Meeting : 스웨덴 스톡홀름(SEK 주관)
- 2010년 CMC Meeting : 이스라엘 텔아비브(SII 주관)

5 NCB 신규 지정 평가(전기연구원)에 대비한 평가위원장 면담

- 일시: 2007. 6. 28(목), 14:00-16:30
- 장소: Hotel COSMOS, 스텍바
- 업무: NCB 평가위원과의 사전 실무협의
- 담당자: 오광해 연구관, 이기택 실장(전기연구원)
- 면담자: Alberto Pederneschi(평가위원장, 이태리)

전기연구원 업무현황 및 인증사업계획(안) 설명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에 대한 실무협의  
IECEE 간사가 임명한 3인의 평가단 구성에 찬성하였다.

※ Alberto (선임평가원, 이태리), Tan Hiok Pheng(평가원, 대만), John Taylor(평가원, 일본)

평가위원장이 제시한 여비· 체재비 및 일당에 대하여 수용하였다.

※ 여비 및 체재비(실비), 일당(선임평가원 10\$/일, 평가원 120\$/일)

현장평가일정은 금년 0.10~15로 확정되었다.

※ 평가단 국내 도착(10.7), 평가 실시(10.10-15),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10.16-18)

10/7 (일)	8 (월)	9 (화)	10 (수)	11 (목)	12 (금)	13~ 14	15 (월)	16 (화)	17 (수)	18 (목)	19 (금)
	CBTL ETL- SEMKO		NCB KERI- ERTL	CBTL KERI- ERTL			NCB KERI ERTL	KERI (SINCERT)	KERI (SINCERT)	KERI (SINCERT)	
도출	Team Leader AP Assessor YY	Team Leader AP Assessor YY	Team Leader AP Assessor TH	Team Leader AP Assessor TH Assessor JT (*)	Team Leader AP Assessor TH AssessorC (*)		Team Leader AP Assessor TH	Team Leader ER Assessor AP	Team Leader ER Assessor AP		출발

위원구분 : AP=Alberto Pederneschi, YY= Yu Yimin, TH= Tan Hiok Pheng, JT= John Taylor

회원국 의견수렴 및 최종결과 공지일정 협의  
평가 및 권고 보고서 회원국 회람 및 회원국 투표  
(07.11~12)  
투표결과를 평가대상 CB에 통보 (08.1~2)  
최종결정 (08.6.10. IECEE/CMC 제주총회)

## 6 회원국간 관심사항 의견교환

CB Scheme 관련 관심사항에 대하여 3개 주제를 선정하여 선진 회원국과의 의견교환

1. MRA시 CB scheme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IECEE/CB scheme은 국가별 적용규격과 인증절차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나, 국가별 제도의 차이 등으로 MRA시에 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CB-scheme을 MRA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은 가능하나, 각국가별 적용규격이상이하고 인증절차도 상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CB-scheme에 의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네덜란드 KEMA)

MRA 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CB-scheme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MRA 체결위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좀 더 발전적으로 (예를 들면 WG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체점을 토론하고 개발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덴마크 DEMKO, 스웨덴 SEMKO)

MRA 체결은 각 나라의 제도의 차이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통된 제도를 채택하여 그 제도에 MRA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 공통된 기준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제도가 CB-scheme이라 생각한다. (중국 CQC)

모든 나라들이 CB-scheme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MRA는 회원국간에만 체결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강제인증이건 아니던간에 서로 다른 제도에 있어서 CB-scheme을 MRA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싱가포르 PSB)

II. MTL제도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 NCB와 CBTL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 MTL(제조자시험소)제도활성화시국가인증기관과 공인시험소는 MTL의 시험절차, 장비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CBTL에 시험에 대한 영역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특정 신뢰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CBTL의 역할이 필요하다.(노르웨이 Nemko)

제조자시험이 활성화되어 쟁우. NCB는 MTL 시험에 대해 여러가지로 고려하여 MTL 지정에 인증을 기해야 한다.(네덜란드 Kema)

NCB에서 제조자시험의 절차, 장비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NCB에서 제조자 시험소(MTL)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미국 UL)

제조자시험은 '1자인증'이기 때문에 NCB에서 MTL을 관리를 더욱 잘 해야 한다(캐나다 CSA)

제조자시험의 경우 1자인증이므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제조자시험의 경우 CBTL이 참여하여 시험절차 및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중국 CQC)

III. "Self Declaration" vs. 3rd Party Certification"에 대한 인증기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SDoC는 시험능력 및 절차 검증이 전제되어야 하는 제도임

세계적인 인증 체계는 제3자인증이다. 1자인증은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증 자체의 의미가 희석된

다. 1자인증의 문제점은 제조자 시험 능력의 검증이 힘들다는 점이다.(덴마크 DEMKO, 네덜란드 EMA)

이미 유럽 지역에서는 자기적합선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조자는 NB(지정기관)에 사발행하는 인증을 통해 자기적합선언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제3자인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프랑스 CIE)

대부분의 제조자는 규격의 이해도 및 설비 능력 및 시험자 능력에서 도량이 부족할 것이므로 3자인증이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증 방법이다.(이탈리아 IMQ)

인증의 원칙은 제3자인증으로, 자사 생산품을 스스로 시험 인증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정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스웨덴 SEMKO)

1자인증이라도 제조자의 시험소 관리가 병행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리의 주체도 문제가 된다(캐나다 CSA)

제도적 검증 절차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제1자인증이 유효한 것이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제도이다.(아르헨티나 RAM)

임의인증의 경우에는 1자인증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강제인증의 경우는 3자인증이 원칙이다.(중국 CQC)

1자인증의 경우 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자인증 기관에 의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미국 UL)

## 7 국제 인적네트워크 구축

제품안전관리 선진국과의 정보교류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 대표)

☞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과 상호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채널을 유지하기로 한다.

VDE는 서울 강남 소재 의연락사무실이 있으며, 상호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연락창구 개설에 동의했다. (독일 VDE)

SEK는 기술표준원 과 같은 MB이므로 NCB, CBTL 관리와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 등 동일 관심사 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스웨덴 NCB SEMKO는 한국의 KTL과 많은 업무상 많은 관련이 있어 협조 채널의 역할이 기대된다. (스웨덴 SEK, SEMKO)

LCIE는 신에너지 산업 인증을 주도하고 있어, 한국에서 요청한 태양광 분야의 인증과 관련한 정보와 협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상호정보교환 및 협력 채널의 구축에 동의했다. (프랑스 LCIE)

아시아 지역 협력 및 정보교환 (싱가폴, 태국 등 5개국)

☞ 싱가포르, 태국 등은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협력체(아세안 전기전자 MRA)에 일본, 중국과 함께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와 별도의 상호협력 채널 구축에 관심을 표명

싱가폴,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협력체(아세안 전기전자 MRA)가 운영 중임. 중국과 일본은 지난 회의부터 Observer로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태국 회의에

참여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싱가폴 SPRING)

태국은 아세안 전기전자 MRA의 차기 회장국으로서 본 협력체에 의한 참여를 특히 희망한다. (태국 TIS)

중국은 한국과 같이 IEC 적합성 이사회 이사국(LU Mei)이고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 등 여러 협력 채널이 있어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협의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중국 CNCA)

일본은 한국에서 요청한 국내 IECEE/CMC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을 약속하고, 상호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IECEE/CMC 회의 개최 협력 (러시아, 스웨덴)

☞ 러시아에서는 총회 개최에 대한 정보 제공에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09 총회 개최국인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정보 공유를 희망했다.

러시아는 '07 CMC 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한국에서 요청한 금년 총회 준비 및 진행 관련 서류 양식과 절차 등에 관한 모든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러시아 GOST R)

'09 CMC 총회를 유치한 스웨덴은 총회 개최에 필요한 정보 등을 한국과 공유하기를 희망했다. (스웨덴 SEK)

### 3. 관찰 및 평가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MTL 지정·운영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MTL 제도의 수용에 반대 입장이다.

중국이 MTL 발행 시험 성적서를 인정할 수 없다 일

장에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계속적인 수용을 요구하고 중국은 차후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했다.

※ SDoC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은 지정된 MTL 수도 많아 MTL 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나 강제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은 MTL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우리나라는 MTL 제도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국내 업체에 대한 MTL 지정 실적이 없어, 국내 주요 가전 업체 등에 대한 MTL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의제에 대하여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이 회의를 주도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역적·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미주 및 EU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사전회의 등을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

※ 일본, 중국이 Observe로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 전기전자 MRA에 참가 검토 필요하다.

IECEE의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 우리나라의 인증 정책 반영을 위하여 인증 기관의 전문가 지정·육성 필요하다.

※ 한국은 WG(작업반), 각종 소관 위원회에 의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2008년 CMC 개최 확정으로 IECEE의 전반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인증 정책 개발, 국제회의 개최 준비, 전문가 양성 등을 담당하는 IECEE/CMC 대응 국내 작업반 설치 필요하다.

| 기술표준 2007. 8

